

최근 한국의 출산율 현황에 관한 고찰

이문영 · 김재문 · 박수진 · 정태성 · 김 신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국문초록

최근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소자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치과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차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파악을 해보고, 저출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도별 출산율 추이를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로부터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 출생아수(number of live births),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 CBR) 및 합계출산율(合計出生率, Total Fertility Rate : TFR)을 통하여 살펴보고, 1990~2002년 세계 주요국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였으며, 국내 지역별 차이는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및 서울시 구별 조출생률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총 출생아수는 49만명, 조출생률이 10.2명, 합계출산율이 1.19명이었다.
2.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었다.
3. 국내 지역별 비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 행정구역별로 출생아수와 조출생률에 있어 심한 차이를 보였다.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조출생률 비교에서는 경기도가 11.9명으로 최고, 부산이 8.0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시 구별 비교에서는 성동구가 11.1명으로 종로구 7.7명의 약 1.5배의 수준이었다.

저출산에 의한 어린이 수의 감소가 실제 소아치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지와 이에 따른 소아치과 전문인력의 공급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요어 : 저출산,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I. 서 론

우리나라는 해방 전후의 혼란기와 6.25전쟁 당시에는 낮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베이비붐이 연결됨에 따라 60년 전후의 출생아수는 급증하였다¹⁾. 그 후 1960~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자녀수에 대한 부담이 강조되고 가족계획사업의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1980년대에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소자녀 규범의 정착,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사회지원 시책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²⁾.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인구대체를 위한 출산율 이하로 떨어지자, 1996년 정부는 35년간 시행해 왔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어, 최근 한국은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는 출생아의 감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향후 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노동력 부족현상을 유발하는 한편, 노동연령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조세수입의 감소,

교신저자 : 김 신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Tel: 051-240-7450
E-mail: shinkim@pusan.ac.kr

III. 결 과

연금 및 의료보험의 압박, 국내소비의 둔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³⁾.

저출산의 또 다른 영향으로 출산, 양육과 관련한 영유아 산업과 의료분야의 수요 감소를 들 수 있다. 영유아산업의 수요 감소로 다른 수입원을 찾아 분야를 전향하거나, 제품·브랜드의 고급화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문가들은 분만과 관련된 산과,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과의 의료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⁴⁾, 실제로도 폐업하는 산부인과가 속출하고 비만관리 등 다른 분야로 전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치과 분야도 앞으로 이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차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을 저하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저출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도별 출산율 추이와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 및 국내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최근 출생률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통계청이 매년 발행하는 인구동태통계로부터 1992~2003년의 총 출생아수(number of live births),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 CBR) 및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合計出生率, Total Fertility Rate : TFR)을 조사하였다. 세계 주요국과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평성 15년 인구동태통계월보년계(개수)」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의 「2004 Population Statistics」의 자료를 이용해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였다. 국내 지역별 차이는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조출생률을 이용해 비교하였고, 더 작은 행정 구역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구별 조출생률을 조사하였다. 이는 2003년 서울시 구별 총 출생아수를 구별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로 계산하여 추정하였다.

Table 1에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출생아수와 조출생률, 합계출산율을 표시하였다. 총 출생아수는 1990년 약 66만 명에서 1992년 약 74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약 62만 명으로 하락하였고, 2000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총 출생아수가 약 49만 명에 이르렀다. 2003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1년과 2002년의 감소율 증가가 두드러진다(Fig. 1).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도 유사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1992년 16.9명이던 조출생률은 연평균 3.45%의 감소를 보여 1999년에는 13.2명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연평균 12.32%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 2002년에는 1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0.97%의 감소로 조출생률은 10.2명이었다(Table 1, Fig. 2).

합계출산율은 1992년 1.78명으로부터 평균 3.16%로 감소해 오다가 2001년 이후 평균 10.78 %로 감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1.17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1.19명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다(Table 1, Fig. 2).

광역자치단체별 조출생률을 비교해 본 결과 출생률의 지역적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조출생률이 높은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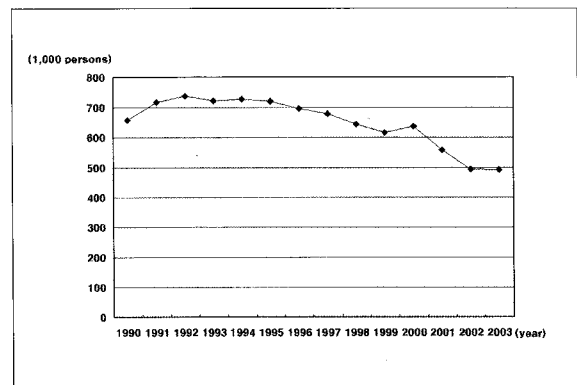


Fig. 1. Trend of number of live births.

Table 1. Number of live births, Crude Birth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in 1990~200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NLB	658.6	718.3	739.3	723.0	728.5	721.1	695.8	678.4	643.0	616.3	636.8	557.2	494.6	493.5
CBR	15.4	16.6	16.9	16.4	16.3	16.3	15.3	14.8	13.8	13.2	13.4	11.6	10.3	10.2
TFR	1.59	1.74	1.78	1.67	1.67	1.65	1.58	1.54	1.47	1.42	1.47	1.30	1.17	1.19

NLB : Number of live births, 1000persons

CBR : Crude Birth Rate, Number of live births per 1,000 persons

TFR : Total Fertility Rate, Number of babies born by one w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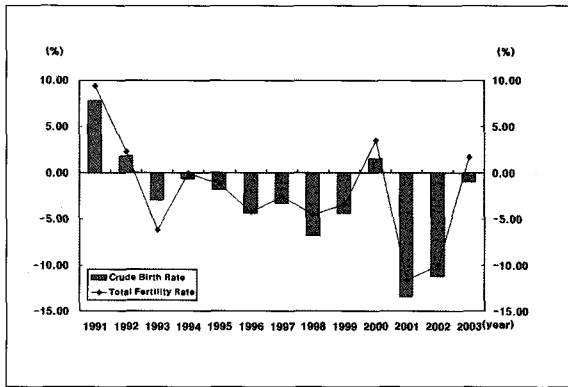


Fig. 2. Rate of change of Crude Birth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from 1991 to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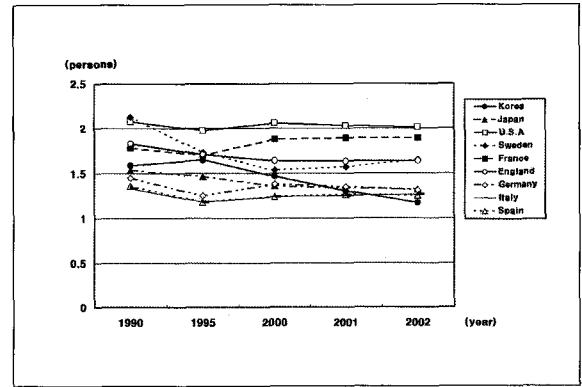


Fig. 3. Trend of Total Fertility Rate of some country.

Table 2. Comparison of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1990	1995	2000	2001	2002
Korea	1.59	1.65	1.47	1.30	1.17
Japan	1.54	1.46	1.36	1.33	1.32
U.S.A	2.08	1.98	2.06	2.03	2.01
Sweden	2.13	1.73	1.54	1.57	1.65
France	1.78	1.70	1.88	1.89	1.89
England	1.83	1.71	1.64	1.63	1.64
Germany	1.45	1.25	1.38	1.35	1.31
Italy	1.33	1.18	1.24	1.25	1.26
Spain	1.36	1.18	1.24	1.26	1.25

Table 3. Crude Birth Rate of local prefectures in Korea from 1990 to 2003

CBR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Seoul	16.1	17.2	17.5	16.1	16.9	15.6	14.5	13.7	13.0	12.3	12.8	11.0	9.9	9.8
Busan	14.7	15.7	15.6	14.6	14.1	13.6	12.9	11.9	11.2	10.7	10.7	9.4	8.1	8.0
Daegu	14.5	15.1	15.4	15.6	14.9	16.1	14.9	14.1	12.9	12.4	12.8	11.1	9.5	9.6
Incheon	18.3	20.6	20.8	19.9	18.6	18.1	16.5	15.7	14.3	13.6	13.5	11.8	10.3	10.3
Gwangju	15.5	17.4	18.5	17.9	18.1	17.9	16.8	16.5	15.5	14.2	15.4	13.1	11.4	11.3
Daejeon	15.3	17.0	17.4	17.4	17.3	17.3	16.4	15.6	14.4	13.7	14.1	12.3	11.0	10.9
Ulsan	21.7	24.3	23.4	21.9	20.1	20.5	19.2	18.0	16.4	15.3	15.2	12.9	10.9	10.9
Gyeonggi	19.3	20.8	20.5	19.9	18.8	18.6	17.8	17.1	15.9	15.1	15.5	13.3	11.9	11.9
Gangwon	12.2	12.6	12.9	12.6	13.0	12.7	12.7	12.9	12.5	12.2	12.4	10.8	9.8	9.3
Chungbuk	12.7	13.8	14.7	14.7	14.7	14.6	14.4	14.4	13.5	12.9	13.0	11.5	10.2	9.7
Chungnam	10.6	11.3	11.8	12.0	12.2	12.4	12.5	13.0	12.7	12.4	12.7	11.3	9.9	9.7
Jeonbuk	11.6	12.1	12.9	12.7	13.7	13.5	13.3	13.1	12.8	12.1	12.4	11.0	9.6	9.3
Jeonnam	10.9	11.7	12.3	11.9	12.6	12.8	12.6	12.9	12.3	12.0	12.0	10.6	9.2	8.9
Gyeongbuk	13.3	14.0	14.5	13.5	14.3	13.1	13.1	13.2	12.4	12.3	12.4	10.8	9.3	9.2
Gyeongnam	14.4	15.7	16.1	15.4	16.0	15.2	15.1	14.5	13.8	13.3	13.4	11.7	10.3	10.2
Jeju	13.2	15.8	16.7	17.0	17.2	16.9	16.5	16.2	15.1	14.8	15.8	13.5	11.8	11.8

경기 11.9, 제주 11.8, 광주 11.3의 순이고, 낮은 곳은 부산 8.0, 전남 8.9, 경북 9.2의 순이었다(Table 3). 특히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의 약 1.5배로 지역적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Table 4. Numbers of live births and Crude Birth Rate of each town of Seoul (2003)

	Numbers of live births	Crude Birth Rate		Numbers of live births	Crude Birth Rate
Nowon	6963	11.0	Jungnang	3841	8.7
Songpa	6313	10.3	Mapo	3830	9.9
Gwanak	5649	10.6	Seongdong	3818	11.1
Gangseo	5638	10.3	Seodaemun	3595	10.0
Eunpyeong	4850	10.1	Seocho	3485	8.6
Guro	4553	10.8	Dobong	3477	9.2
Yeongdeungpo	4552	10.9	Gangbuk	3409	9.3
Gangdong	4360	9.2	Dongdaemun	3269	8.5
Gangnam	4329	8.1	Geumcheon	2511	9.4
Dongjak	4295	10.3	Yongsan	2171	9.1
Yangcheon	4229	8.6	Jongno	1382	7.7
Seongbuk	4227	9.2	Jung-gu	1188	8.6
Gwangjin	4201	10.8			

서울시의 구별 출생률을 살펴본 결과 더 작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2003년에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1,188명)였고,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6,963명)로 약 6배의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조출생률도 가장 낮은 곳은 종로구로 7.7명이고,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11.1명이어서 전체 인구수의 영향을 배제하여도 약 1.5배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IV. 총괄 및 고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90년 1.59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다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감소 추세가 둔화되어 비교적 안정화되었다²⁾. 그러나 2000년 즈문둥이 계획출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2001년과 2002년에는 다시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2003년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증감 양상은 최⁵⁾의 합계출산율 모의실험 결과와 유사하다. 그는 학력수준의 상승과 이로 인한 출산시기의 지연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증가하는 방향에서 2000년까지는 주로 대졸이상 학력자의 증가에 의하여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의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다가 안정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급속한 하락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최초출산 연령의 추이를 분석하여 경제위기에 의한 비취업자의 초산연령 상승이 2001년과 2002년의 급속한 합계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고 해석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력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과 20대의 미혼율이 크게 상승한데 기인한다고 추정하고, 향후 상당히 낮은 출산력 수준이 지속되어 합계출산율이 1.4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⁶⁾. 최⁵⁾

의 모의실험 결과와 통계청의 추계는 향후 출산율은 안정화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드물게 9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장기호황에 의해, 프랑스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현재 합계출산율이 2.0명에 가까운 상태이다⁵⁾. 스웨덴도 90년대에 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는 80년대의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⁵⁾.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현재는 안정화 되었다. 이런 서구제국의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90년대 초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것이 서구국가에서처럼 상승세로 돌아서고 안정화될 것 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문제이다.

김⁷⁾에 의하면 1966년에서 1985년까지의 광역행정구역별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여 지역간의 출산율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1980~1990년의 시도별 평균출생아수(mean number of children ever-born)를 비교하여 도별로 차별출산력이 존재하고 출산력의 차이가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은 등⁸⁾의 견해와는 상이하다. 본 조사에서도 광역자치단체별 비교에서 90년대 초에 비하면 줄어든 상태이기는 하나 2003년에 조출생률이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약 1.5배 차이가 나고 있어 여전히 지역별 차별 출산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집단의 출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경제적 배경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또한 변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며, 결혼연령 상승이나 경제위기 등의 단순한 문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여러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전⁹⁾은 이혼율은 증가하는 반면

혼인율은 감소하고 또한 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에 퍼진 결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김 등¹⁰⁾은 더욱 세분화하여 간접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성공적 가족 계획사업,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증대, 여성 지위의 향상,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결혼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 부담의 증대를 들었고, 직접적 요인으로는 만혼 현상에 따른 미혼율의 증가와 기혼 부인의 소자녀관 정착을 들었다. 김 등¹¹⁾은 남아선호 사상이 줄어든 것 또한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한과 광³⁾의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좀 더 정리되어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자아실현 욕구 증대, 사회참여 욕구 증대로 여성 취업은 증가하였으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거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로 인해, 자녀양육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미혼율이 증가하고 소자녀관이 확산되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자녀가치관의 변화는 권과 김¹²⁾이 행한 청소년, 어머니, 할머니 세대 집단간의 비교에서 자녀의 도구적 가치는 감소하고 정서적 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많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정적 자녀가치 중 청소년, 어머니 세대는 재정적 부담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보다는 자녀로 인해 자유를 제한받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Kwon 등¹³⁾의 연구에서 자녀 투자에 대해 어머니 자신이 잃게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인식한다는 점과 유사하다. 즉 자녀가 주는 긍정적 가치보다 부정적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는 쪽으로 자녀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의 요인으로 보기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저출산에 의한 어린이 수의 감소가 실제 소아치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소아치과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이 변화되고, 유치 우식의 치료나 발육 중인 치열에 대한 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의 제도 시행에 따른 소아치과의 공급 조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의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를 제시하였다. 소아치과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의 수급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V.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총 출생아수는 49만명, 조출생률이 10.2명, 합계 출산율이 1.19명이었다.
2.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3. 국내 지역별 비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 행정구역별로 출생아수와 조출생률에 있어 심한 차이를 보였다.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조출생률 비교에서는 경기도가 11.9명으로 최고, 부산이 8.0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시 구별 비교에서는 성동구가 11.1명으로 종로구 7.7명의 약 1.5배의 수준이었다.

참고문헌

1. 정구현 : 한국의 출산력 추이 및 전망. 통계연구, 5(2):1-21, 2000.
2. 김승권 :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12:6-21, 2003.
3. 한유미, 광혜경 :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 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2004.
4. 조성현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보건의료인력. 보건복지포럼, 12:45-55, 2003.
5. 최경수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한 분석.
6. 장래인구추계 결과 : 통계청 인구분석과, 2001.
7. 김한곤 :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경북, 62-64, 1993.
8. 권태환, 김태현, 김두섭 등 :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서울, 99-125, 1997.
9. 전광희 : 한국의 인구 및 주택. 한국이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통계청, 2002.
10. 김승권, 최병호, 정경희 등 : 저출산이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정책보고서 2002-4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2002.
11. 김승권, 최민자, 이연주 등 :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정책보고서 2003-2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2003.
12. 권용은, 김의철 :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2004.
13. Kwon, Park, Kim : Value of children in different generation of Korean women. 4th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nnual Conference, Melbourne, Australia,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TRENDS OF BIRTH RATE IN KOREA

Moon-Young Lee, Jae-Moon Kim, Soo-Jin Park, Tae-Sung Jeong, Shin Kim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As the current level of birth rate of Korea has dramatically declined, it is obvious that pediatric dentistry will also be affected by this change.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on the current fertility levels of Korea.

The formal data on the number of live births(NLB), crude birth rate(CBR) and total fertility rate(TFR) published annually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from 1992 to 2000 were used as materials for this study. The TFR values from 1990 to 2002 of Korea were compared with those of some western countries with similar history of decreased birth and the CBR values of the metropolitan cities and the capital city Seoul in 2003 were compared domestically, yielding to results as follows.

1. Recent birth rate of Korea was decreased continuously. NLB was about 490,000 CBR was 10.2 and TFR was 1.19.
2. TFR of Korea in 2002 was 1.17, the lowest in the world.
3.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NLB and CBR between local prefectures and towns of Seoul domestically.

Additional population studies and medico-economical studies to exactly predict the demands of pediatric dentistry and proper supplies of manpower in the future was thought urgently required.

Key words : Low fertility, Crude Birth Rate, Total Fertility Rate